

## ‘축대 무너지고 주택 잠기고’...광주·전남 비 피해 속출

150mm 물폭탄 쏟아져...황룡강 장록교 부근 홍수주의보  
바닷길·하늘길 막히고 국립공원 탐방로도 속속 통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지역에 굵은 비가 내리면서 축대가 무너지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6분쯤 전남 영광군 법성면 한 주택 인근에서 토사를 막기 위한 3m 축대가 일부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축대 붕괴 시 토사가 주택가를 덮칠 위험이 있어 즉시 방수포를 덮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

오전 6시30분쯤 전남 여수시 소라면 한 도로 옆에서는 도랑이 넘치고, 오전 7시쯤 여수시 돌산읍 한 주택 부위에 물이 차올라 소방당국이 배수작업을 벌였다.

전남 목포에서도 용해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가 침수돼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

목포 죽교동과 대성동 등 4곳에서 주택 8동, 완도와 장성에서 주택 1동씩이 각각 침수됐다.

광주에서도 비로 도로가 잠겼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전남 오후 10시30분쯤 광주 서구에서는 밤 사이 내린 비로 가로수가 넘어졌다.

동구와 북구에서도 가로수 전도 사고가 1건씩 접수돼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이날 오전 6시45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 한 도로에서 침수가 발생해 성인 무릎 높이만큼 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오전 7시20분께 광주 광산구 도천동 주택 마당이 잠겨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했다.

황룡강 장록교 부근에는 많은 비로 인한 범람이 우려돼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또한 서남해안 바닷길 일부도 통제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여수 10항로 12척 중 3항로 3척, 목포 25항로 46척 중 12항로 16척, 완도 13항로 18척 중 1항로(이목-당사)가 통제됐다.

광주공항에서는 양양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 2편(오전 11시, 오후 5시35분)이 결항됐다. 무안공항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국립공원 탐방로도 속속 통제되고 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내장산백암, 다도해서부, 다도해해상, 무등산, 무등산동부, 월출산, 지리산전남을 비롯해 호우경보가 내려진 내장산과 다도해서부가 입산 통제



**불어난 하천 '위험'** 광주와 전남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13일 광주 북구 임동 두물머리 인근에서 북구청 건설과 하수팀 국가하천 담당직원들이 폭우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했다.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전날부터 최대 150mm가 넘는 비를 뿌린 가운데 호우·강풍특보는 이날 오전 모두 해제됐고, 신안

흑산도와 홍도는 강풍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정승호 기자

## 광주 코로나 확산세 지속...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하나

오는 15일 종료 앞두고 오늘 대책위 방역대응단계 논의



13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앞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될지 주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3일 코로나19 서면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오는 15일로 종료된다”며 “내일(14일)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방역대응단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7명(해외입국 1명 포함)이 추가돼 총 누적 확진자는 168명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자,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해 왔다.

2단계 상향으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또는 모임과 행사가 모두 금지됐다.

또한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 개방을 중단하고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학원, 콜센터, 게임장 등에도 집합제한 조치를

내리고 쇼핑몰, 숙박업소, 식당, 산후조리원 등에는 이용제한 권고가 전달됐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정규예배를 제외한 일체의 대면모임과 행사 금지, 음식섭취 행위 금지,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간격 유지, 전자 출입명부의무 설치 등이다.

이처럼 강화된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양오피스텔을 시작으로 광복사, 일곡중앙교회, 광주사랑교회, 광주고시학원, 배드민턴 동호회까지 n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어 14일 예정된 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의 논의에서도 방역대응단계는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방역당국의 온갖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지금은 방역당국과 시민들께서 그동안 내린 각종 행정조치를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감염 확산 방지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인호 기자

## 전남 섬에 ‘연안크루즈’ 도입

도, 새로운 관광자원화 용역 착수

‘다도해’인 전남의 섬들에 적합한 소형 크루즈를 도입해 섬 자원을 새롭게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특화된 섬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섬과 연계한 기항지와 모항지, 소형 연안크루즈 규모 선정 등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크루즈산업육성법, 해운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와 정부·지자체가 마련한 각종 계획 등에 대한 분석과 국내의 사례조사, 연안크루즈 산업 발전전략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전남도청 수리채에서 가진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는 연안크루즈 도입 방안으로 승선 인원 300~500명 이내 기존 소규모 여객선 등을 활용한 1박 2일, 2박 3일 등 단기 관광용 크루즈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도는 이번 용역을 계기로 전남의 뛰어난 섬 자원들을 활용한 연안크루즈가 도입될 경우 새로운 관광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환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